

한국 재팬리포터 방일단(제 2~5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한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 방일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이상의 차세대 인플루언서 등을 초빙하여, 각종 시찰, 동세대 교류,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아직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새로운 매력을 발신함으로써,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 차세대 인플루언서(단장 1명, 인솔 1명을 포함) 총 121명

【방문지】 아이치현, 기후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1월 8일 (수요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1월 14일 (화요일) 중부국제공항으로 입국, 오리엔테이션

1월 15일 (수요일) 【강의】 외무성 “새로운 일한관계에 대해”

【시찰】 다카야마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시찰】 세계유산 시라카와고, 이시카와현으로 이동

1월 16일 (목요일) 【예방】 이시카와현청

【강의】 이시카와현의 개요와 노토반도지진의 피해 상황과 부흥에 대해

(제 2·3 단) 【피해지역 시찰】 노토철도 카타리베 (이야기꾼) 열차, 나나오시내 (노토식제시장등)

(제 4·5 단) 【교류·시찰】 가나자와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시내 시찰
겐로쿠엔, 가나자와성공원, 히가시차야가이 등

1월 17일 (금요일) (제 2·3 단) 【교류·시찰】 가나자와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시내 시찰

겐로쿠엔, 가나자와성공원, 히가시차야가이 등

(제 4·5 단) 【피해지역 시찰】 노토철도 카타리베 (이야기꾼) 열차, 나나오시내 (노토식제 (食祭) 시장등)

1월 18일 (토요일) 【시찰】 가가(加賀) 전통공예마을 유노쿠니노모리, 【체험】 와지마누리,

후쿠이현으로 이동, 【강의】 홈스테이 지역의 개요와 매력,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1월 19일 (일요일) 【교류】 홈스테이

1월 20일 (월요일) 홈스테이로부터 재집합, 【예방】 후쿠이현청, 【강의】 후쿠이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 【시찰】 후쿠이현내시찰 (마루오카성, 에이헤이지~스님의 법화를 들으면서)

1월 21일 (화요일) 【시찰】 후쿠이현내시찰 (후쿠이현립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박물관 및 복원거리, 츠루가 니훈카이 어시장), 아이치현으로 이동

1월 22일 (수요일) 성과보고회 (방일성과·귀국후의 활동 계획 발표), 중부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5년 1월 15일 【강의】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해”



2025년 1월 16일 【예방·강의】 이시카와현의 개요와 노토반도지진의 피해 상황과 부흥에 대해



2025년 1월 16, 17일 【피해지역 시찰】 노토철도 카타리베 (이야기꾼) 열차



2025년 1월 16, 17일 【피해지역 시찰】 나나오시내



2025년 1월 19일 【교류】 흥스데이



2025년 1월 20일 【예방·강의】 후쿠이현청 후쿠이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



2025년 1월 21일 【시찰】 후쿠이현립 이치쥬다니 아사쿠라씨 유적박물관 및 복원거리



2025년 1월 22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 감상(발체)

◆ 한국 대학생

노토반도에 도착하여 아나미즈역에서부터 노토철도를 타고 나나오역까지 이동하며, 노토반도 지진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신 승무원분의 해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승무원 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실제로 반파된 주택들과 기물들, 그리고 고 건물 해체 작업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지진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분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 한국 대학생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시민들. 자신의 집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감히 본인이 가능할 수 없다 느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께서 다시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나아가려 하는 태도도 엄지를 치켜 들게 됐습니다. 희망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았고, 한국재팬리포터방일단으로서 홍보로 노토반도의 부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다짐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이번 방일단은 아무래도 노토반도의 지진 그 1년 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왕국으로도 불리울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에, 직접 지진 피해를 겪은 주민분들의 경험담과, 홈스테이에서 만난 지역 주민분들이 이번 지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사고의 깊이 또한 넓어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시카와현청 및 후쿠이현청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지의 소개만이 아닌, 일본과 한국의 관계성, 각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떤식으로 협력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을 돌아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직접적으로 지진의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때의 상황과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더욱 그 가르침들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정의 생활 모습과 온정을 주고받으며 제 안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이시카와현, 후쿠이의 관광, 지역 전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관광의 목적으로 일본을 왔다면 접하지 못했을 절, 전통가옥 등을 방문할 수 있었고, 후쿠이 홈스테이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체)

◆ 이시카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관계자

이번에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토철도와 와쿠라온천의 료칸에서는 재해 피해 후 첫 외국 손님이셨다는 점에서, 리포터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발신이 부흥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노토의 관광사업자 분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가나자와를 비롯한 가가, 노토의 관광 매력이 여러분의 소급력 있는 발신을 계기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재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한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의 해에 일본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과 이번 방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힘으로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후쿠이현 산업노동부국제경제과 관계자

이번에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후쿠이현에서는 ‘후쿠이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로부터 호쿠리쿠신칸센의 후쿠이 개업과 인바운드를 위한 타겟에 대해서 등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발견한 일본과 후쿠이현의 매력을 정보로 발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약 그리고 다시 후쿠이현을 방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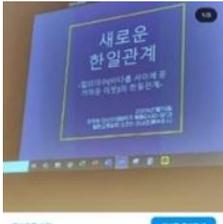
◆ 홈스테이 호스트패밀리

우동 만들기 등 저희가 준비한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 환성을 지르며 기뻐해 주셨던 것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두 명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일을 도와주거나 생활 스타일을 배려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국 디저트를 대접해 주셔서 실제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이었지만, 특별히 문제 없이 양국의 관계성 등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신 선물 센스도 좋아서 아이들이 금방 따르게 된 것에는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어로 쓴 편지를 받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가 생겨서 저희들에게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패밀리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온천에 가고, 저녁식사는 테마키즈시와 일한의 김치를 비교했습니다. 6명 모두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어서 저희까지 힘을 얻었습니다. 후쿠이의 저녁식사가 맛있어서 일본에 와서 가장 많이 먹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맛있고 즐거운 저녁식사가 되어 안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체재 중의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된다고 느끼는 것 같았고, 일본을 즐기며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돌아가는 날 아침까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편집하여 2박3일간의 추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에 가족들이 너무나도 감동했고 눈물의 이별이 되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p>2025년 1월 15일 (Instagram)</p> <p>한일정상회담부터 구조적 변화까지, 공통 이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양국 관계를 살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우리의 가까운 이웃,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p>	<p>2025년 1월 17일 (Instagram)</p> <p>노토철도를 타고 당시 상황과 노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는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보이는 지진 피해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 후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노토의 시간은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인구 소멸 마을의 파손된 상수도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3 일차 이시카와현청 일정에서 들었던 창조적 부흥 플랜을 통해 노토의 정체성을 지키며 피해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인바운드 방문객이 9만 8천명 정도였고, 한국인이 4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해요. 코로나 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5만 4천 명 중 한국인이 4% 차지하여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p> <p>일본하면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만 많</p>
<p>2025년 1월 20일 (Instagram)</p> <p>후쿠이시에서 2박 3일간 홈스테이..</p> <p>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처음으로 さい (사이)라는 일본 이름이 생기고 홈스테이 기간 동안 가족들의 일상을 같이 체험했었다. 절대 잊지 못 할 것 같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다시 선물을 엄청 사들고 찾아뵙고 싶다.</p>	<p>2025년 1월 24일 (NAVER blog)</p> <p>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인바운드 방문객이 9만 8천명 정도였고, 한국인이 4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해요. 코로나 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5만 4천 명 중 한국인이 4% 차지하여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p> <p>일본하면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만 많</p>

이 가지않아요?
이번 기회로 후쿠이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 소도시의 정, 자연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후쿠이로 오세요!



2025년 1월 17일 (호쿠리쿠추니치신문)
‘한국의 젊은이 피해지역을 이해하다…강의와 노토 순회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이시카와 현청에서의 노토 반도 지진 관련 강의 모습과 단원 인터뷰를 게재

2025년 1월 21일 (일간현민후쿠이)
‘한국방일단 후쿠이를 체험…121명 매력 발신을 위한 관광지 시찰’이라는 제목으로, 후쿠이 현청 예방 모습을 게재



2025년 1월 21일 (후쿠이신문)
‘한국학생 마루오카성을 체험…현내 관광지를 SNS 발신’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마루오카성을 시찰한 모습을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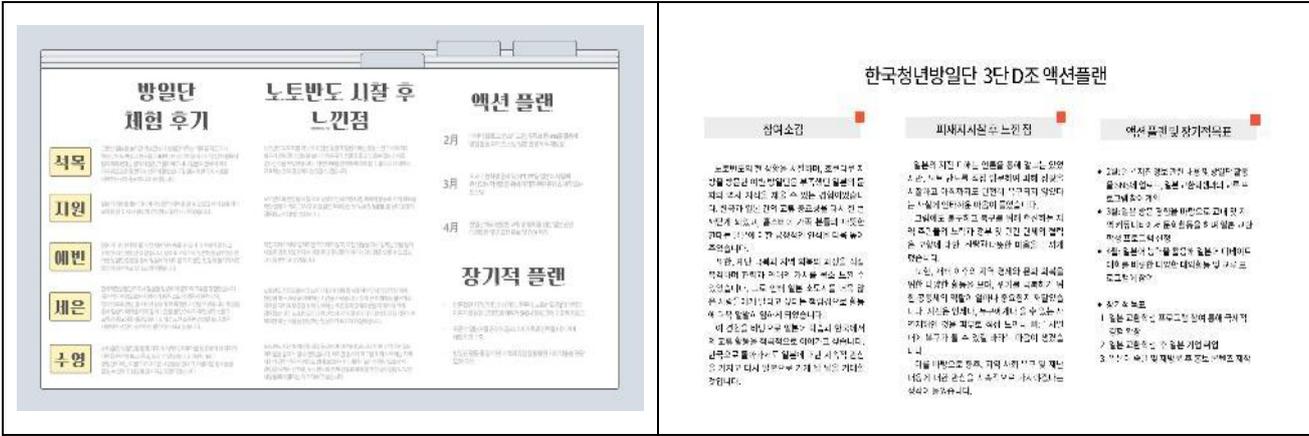
2025년 1월 26일, 2월 2일 (NHK WORLD 하나카페)
‘노토반도 지진으로부터 1년 한국 방일단의 현상 시찰’이라는 제목으로, 재해피해지 시찰 모습과 실제로 노토를 방문한 감상을 단원에게 인터뷰하는 형태로 소개



2025년 1월 25일 (머니투데이)
「'대지진의 교훈' 공유열차 상품화…日 노토반도의 재난 대처법」 외에도 동 신문에서 2/3 자로

2025년 1월 31일 (제주의 소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韓 청년 120여명 방일 프로그램 성료」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 플랜 발표(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성과 발표】

-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배울 수 있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 의무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이번 방일단 활동을 통해 일본어에 재미를 더욱 붙인 것 같아 돌아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 개인여행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소도시 방문과 현청방문, 현지인과의 만남, 홈스테이 등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방일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더욱 깊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통과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직접 느낀 소중한 감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는 발신자가 되고 싶다.
- 노토반도 피해지를 가보고 지진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것을 느꼈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곳이 있는 걸 보니 피해복구가 정말 힘들고 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대비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액션플랜】

- Naver Blog, Instagram, YouTube 등을 활용해 방일 활동 후기 포스팅
- 도쿄 교환학생 준비 및 JLPT, JPT 등 일본어 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격증 관련 콘텐츠 제작 또는 포스팅
- 방일단 활동 중 알게 된 지역의 강점을 활용

【성과 발표】

- 호쿠리쿠 지방의 방문은 부족한 일본 문화와 역사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한일교류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했다.
- 홈스테이 가족의 따뜻한 대접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높여 주었다.
- 일본의 소도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과 한국에서의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고 싶다.
- 노토반도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시찰하고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부흥에 진력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행정과 민간 단체의 협력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지진 후의 지역경제와 문화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지진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빠른 복구를 바라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해에 대한 대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액션플랜】

- 일본의 지진 관련 정보 및 방일단 활동을 SNS에 업로드

<p>한 지역 맞춤형 관광 모델 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해 홈스테이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며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교환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참가 ▪ 교내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문화활동을 실시 ▪ 교환유학 신청하기 ▪ 일본어 토론대회 등 대외활동과 교류프로그램에 참가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